

국가예산 확보 활동 본격 돌입

정현을 익산시장, 기재부 방문해 현안 예산 반영 건의도·정치권과 공조체계 구축 위한 전방위적 활동 나서



정현을 익산시장이 2026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현을 시장은 17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실 간부 공무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시장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강운진 경제예산심의관,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익산시의 핵심 사업들이 올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국회 감액 예산안 처리로 미반

영된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형상 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기술 고도화(R&D) △식재산업 지원센터 설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북특산물교육원 설립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시는 오는 3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조감상 세종사무소장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이춘석·한병도 의원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익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규 사업 발굴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제6대 아동의회가 아동 참여권 실현과 권리 증진을 위한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15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정례회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

익산시 제6대 아동의회 정례회·해단식

길거리 흡연 문제 해결 방안·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안전 상정

익산시 제6대 아동의회가 아동 참여권 실현과 권리 증진을 위한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15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정례회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

제6대 아동의회는 지난해 3월 선발된 50명의 아동이 4개의 상임위(안전, 교육, 문화, 복지) 분과에서 활동하며, 아동 권리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정례회는 차연서 아동의장(가온초 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동교육위원회 김다은 위원장(동북초 5)의 '아동의 놀거리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3분 발언이 이어졌다. 아울러 지난 제6차 임시회에서 결정된 안전인 △아동안전위원회의 '길거리 흡연 문제 해결 방안' △아동복지위원회의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을 상정했다.

아동안전위원회 박엘리 위원장(가온초 4)과 아동복지위원회 장하린 위원장(부천초 6)의 제안실명 후 질의응답

과 의사 표결 시간을 가졌다. 정책제안서는 이어진 해단식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강경숙 익산시의회 부의장에게 전달됐다.

차연서 아동의회 의장은 "아동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낸 활동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익산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갔기를 기대한다"며 "이어질 제7대 익산시 아동의회도 응원한다"고 전했다.

강경숙 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뿌듯하다"며 "익산시의 중요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주길 바라고 지역의 훌륭한 인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제6대 아동의회는 마무리됐지만,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익산시 아동들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아동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본격 가동한다

외국인 주민 대상, 실질적 정착 지원·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 제공

군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8일 문을 여는 센터는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의 통합을 위한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도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위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 오식도동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분말3길 23) 1층으로 정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 생활여건 등을 반영하여

평일 뿐 아니라 주말도 포함해 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열린다. 외국인 주민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단계별 교육 일정은 △0단계(기초: 3월 8일~29일) △1단계(초급 1: 4월 5일~9월 27일) △2단계(초급 2: 3월 8일~8월 30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된다.

참가를 원하면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063-454-263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한 외국인 주민들이 어느덧 군산시 총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적응을 돕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센터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실질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와 외국인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1만 3,374명으로 총인구 26만5,764명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996명(17.5%) 증가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보리 생육재생기 웃거름 주기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는 최근 기상과 보리 생육 상황을 분석한 결과 맥류 생육재생기를 2월 16일로 설정하고 웃거름 주기 사용과 잡초방제를 당부했다.

보리 등 맥류는 생육재생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웃거름을 줘야 효과적이고, 서릿발로 인해 뜬 보리를 밟아주

거나 툄러로 눌러주는 등의 재배와 시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웃거름은 10a당 요소비료 10kg을 한 번에 살포해도 되지만 15일 간격으로 5kg씩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습기가 많은 논은 비료 유실이

크므로 배수가 된 상태에서 비료를 주어야 한다.

이번 겨울의 경우엔 잦은 강설로 맥류의 동해 및 습해가 우려되는 만큼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해 물이 잘 빠져 나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황화현상이 발생한 포장에서는 요소 2% 액(100L에 요소 2kg)을 10a당 100L씩 2~3회 잎에 뿌려주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공모사업 선정

군산시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포함 예산 5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정부, 자치단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원청, 근로자 4자 적립 방식으로 각각 매월 8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적립 후 2년 만기시 800만원의 공제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년간 추진되며, 조선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인력 운영 및 기술 숙련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5개 사내 협력사 재직근로자 414명이다.

작년 재직자 희망 공제 참여자 중 76.1%는 군산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고용 위기 이후 조선업종 신규 입사 및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장기입원 실태 조사 나서... 5월까지 추진

익산시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입원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지역 8개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4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입원 실태조사는 △입원경위 △건강 상태 △사회적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 결과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판단되면, 재가 의료급여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 관리는 중독 진료와 약물 처방을 줄여 의료비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임산부·아동 있는 취약가구 대상...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지원

익산시가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익산시는 취약계층이 농산물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하는 이용권인 농식품 바우처 발급 신청을 받는다.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다.

시는 3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를 진행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1551-0857)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매월 10만 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 카드는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미지급된 3월분은 올해 12월 지급분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